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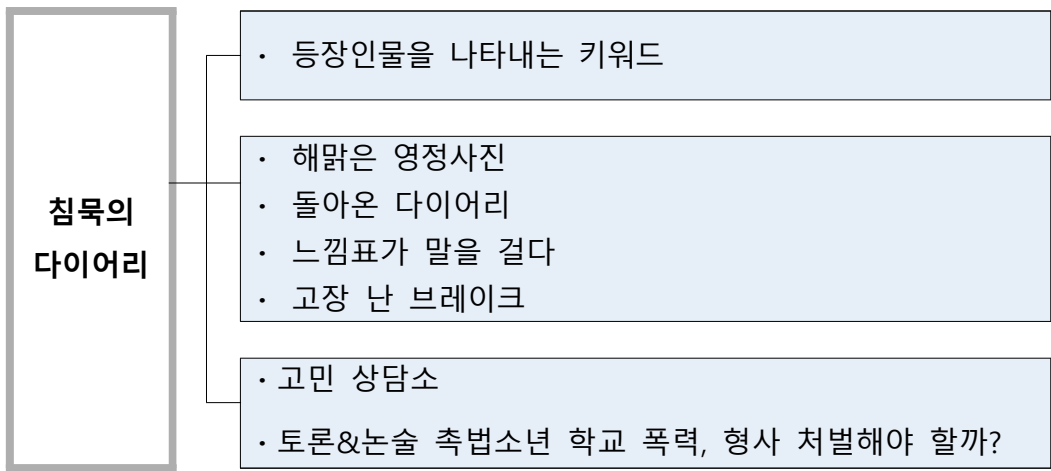
침묵의 다이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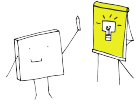
- * 글 : 서성자
- * 펴낸곳 : 단비청소년 * 정가 : 12,000원
- * 분량 : 204쪽 * 대상 : 청소년

· 책 소개

어느 날 유하에게 낯익은 다이어리가 배송된다. 그런데 그 다이어리는 단짝 수지에게 유하가 선물한 다이어리였다. 유하는 왜 이 다이어리가 자신에게 배송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금은 수지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혹시 수지가 이 다이어리를 통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하는 수지의 다이어리를 읽고 또 읽다가 다이어리에 숨어 있는 단서를 발견하고, 그 단서를 시작으로 수지가 다이어리에 숨겨 놓은 비밀을 하나씩 찾아 나간다. 놀랍게도 다이어리에는 유하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수지의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었다. 다이어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 주요 독후활동





독서 전

1. 이 책의 앞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번호	앞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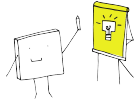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2. 『침묵의 다이어리』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어느 날 내게 낯익은 다이어리가 배송되었다.
 단짝 수지에게 내가 선물한 다이어리였다.
 수지는 왜 내게 다이어리를 보낸 걸까?
 수지는 지금 만날 수 없다.
 나는 그 이유를 알아낼 수 있을까?
 아니, 알아내야만 한다.
 수지가 내게 다이어리로 무언가 말하려고 한 것일 테니까.

1) ‘나’에게 다이어리를 보낸 수지를 만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2) 수지가 ‘나’에게 다이어리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3) 수지의 다이어리가 침묵의 다이어리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지 유추해서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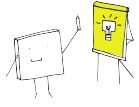
독서 후 ① 등장인물을 나타내는 키워드

1. 『침묵의 다이어리』를 읽고, 각 인물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를 찾아 적어 보세요.

형용사 모음

근면한, 엄격한, 유능한, 심술궂은, 어수선한, 공격적인, 냉혹한, 냉정한, 얘기하기 좋아하는, 진보적인, 용기있는, 단호한, 완고한, 고집이 센, 수다스러운, 겁많은, 창의적인, 분별있는, 믿음직한, 비판적인, 거만한, 건방진, 활동적인, 적극적인, 인색한, 경솔한, 성의없는, 슬픈, 시원시원한, 해맑은, 부드러운, 사랑스러운, 가벼운, 투명한, 순수한, 잔잔한, 수수한, 단호한, 차분한, 자유로운, 감미로운, 달콤한, 친근한, 포근한, 밝은, 성숙한, 지적인, 남성적인, 중후한, 무거운, 여유있는, 감성적인, 단순한, 아름다운, 따뜻한, 안전한, 현명한, 짙짙맞은, 날카로운, 의심이 많은, 합리적인, 강단있는, 확고한, 완강한, 결단력 있는 등등

수지	<input type="checkbox"/>
유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은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영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민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하 엄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하 아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지 고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독서 후 ② 해맑은 영정사진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선생님, 우리 수지가 자살이라니요. 아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누군가 죽인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온몸에 피멍이 들어 볼 수가 없더라고요. 옷으로 가릴 수 있는 곳만을 골라 때린 것 같아요. 보라색 무늬의 속옷을 입은 것 같더라고요. 어느 독한 인간이 그토록 때렸을까요? 아무 눈치도 못 챈 저는 고모 자격도 없어요.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즘 밥을 잘 못 먹어도 그냥 입맛이 없나 보다 했는데.”

(나) ‘고모가 수지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아니요. 눈치 못 챈 제가 바보지요. 용서 못 받을 죄인이고요.”

고모가 다시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수지의 고모에게서 열린 락스 냄새가 났다.

㉠‘우리 고모에게서는 향수 대신 락스 냄새가 난다. 화장실 청소하면서 뱀 냄새야. 난 그 냄새가 싫지 않아. 그게 우리 고모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거든.’

언젠가 했던 수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다) 누가 수지를 때렸을까? 왜 내게 말 한마디 없었을까? 아니야. 언젠가 할 말이 있다고 했어. 언제였더라? 왜 못 들었지? 내가 급한 일이 있었는데? 아, 그때 막 영모랑 사귀기 시작했었지? 영모랑 만나기로 해서 나중에 말해 주라며 급히 떠났어. 그럼 그때 내게 할 말이 있었던 거야? 그 일 후에도 수지는 내게 말해 주지 않았다. 내가 영모랑 만나느라 정신이 없을 때였다. 아, 또 있었다. 일주일 전인가? 수지가 할 말이 있다고 했었지? 그 때도 영모랑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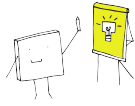
“나 영모랑 영화 보기로 했어. 미안. 나중에 말해 줘.”

그 두 번의 나중은 수지와 나에게 오지 않고 말았다.

1. (가)에서 고모가 수지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나)의 ㉠의 말로 미루어보았을 때 수지의 성격은 어떠한가요?

3. (다)에서 유하에게 할 말이 있었다던 수지의 말은 무엇이였을까요?



독서 후 ③ 돌아온 다이어리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 애가 택배를 보냈다고요? 일단은 받을 사람이 뜯어 본 뒤 경찰서로 갖고 가겠습니다.”

교감 쌤이 커터 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맙소사! 봉투에서 나온 것은 다이어리였다. 내가 수지에게 선물한 파란색 다이어리. 표지에는 내가 붙여 준 팽수 캐릭터가 웃고 있었다.

“수지 너 이 팽수처럼 모두에게 사랑 많이 받으라고 붙였어.”

“고마워. 잘 쓸게. 내가 작가 되면 두 번째로 책에 사인해서 유하 네게 선물할게.”

“첫 번째는 누군데?”

“당근, 우리 고모. 날 길러 준 우리 고모께 첫 번째로 바쳐야지 않겠냐?”

다이어리를 선물하며 주고받았던 말이 푹푹하게 기억났다. 나는 몸도 마음도 돌처럼 굳어지고 말았다.

(나) “뭐야? 뭐야?”

나는 자리에 털썩 앉았다.

“수지 다이어리.”

사실대로 말해 줬다.

“다이어리? 거기 무슨 증거가 있는 것 아닐까?”

“뭐라고 쓰여 있어? 무슨 증거라도 있어?”

“진짜 자살이래?”

“타살 눈치를 채고 미리 보낸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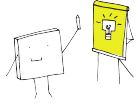
“죽게 만든 범인 이름이 쓰여 있어?”

“범인이 누구야?”

“왜 자살했는지 이유가 쓰여 있어?”

1. (가)에서 수지의 다이어리를 택배로 받은 유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하가 되어 생각을 적어 보세요.

2. (나)에서 친구들이 유하에게 물려들어 궁금해한 것은 무엇인가요?



독서 후 ④ 느낌표가 말을 걸다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너 포기하는 거야? 강유하답지 않네. 내가 그냥 일기를 남긴 것 같아? 너니까, 남긴 거야. 지금까지 퍼즐을 잘 찾아왔잖아? 이제 조금만 더 찾아 맞춰 볼래? 그럼 그림이 완성될 거야. 일기에 사실대로 쓰지 못한 이유도 너는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나는 널 믿어.’

(나) 그날도 지운 흔적이 보였다. 채 지워지지 않은 글씨 흔적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들의 생리 거짓 일기를 나중에 일부러 써넣은 것 같았다.

1. 거짓 생리 일기 2번
2. 거짓 생리 일기 뒤에 붙은 느낌표(!)
3. 지우고 다시 쓴 흔적. 틈새에 끼어 있는 지우개 똥
기껏 세 가지다. 이것들이 수지가 내게 남긴 힌트다. 내게 무얼 알리고 싶었을까? 왜 거짓 일기를 써넣었을까? 이것만으로 무얼 찾아낼 수 있을지 암담하긴 마찬가지였다.

(다) 가연이, 다희, 민서 이름이 있는 문장에 찍힌 느낌표(!).

그게 수지가 내게 알려 주고 싶은 이름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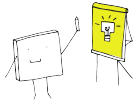
학폭이 맞는 걸까? 세 애가 가해자란 말인가? 믿을 수가 없었다. 세 애가 나오는 곳을 읽고 또 읽었다. 학폭 피해자로 다른 학교에서 전학 온 가연이. 똑 부러지고 다부진 다희. 전교 1등. 공부 외에는 다른 데 관심 없을 것 같은 민서.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수지가 허투루 남긴 힌트는 아닐 것이다. 믿고 싶었다.

1. (가)는 유하에게 하는 수지의 말입니다. 수지의 목소리를 듣기 전과 듣고 난 후 유하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나요?

수지의 목소리를 듣기 전	수지의 목소리를 듣고 난 후

2. (나)와 (다)를 읽고 거짓 생리 일기와 친구들의 이름 뒤에 붙은 느낌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3. (가), (나), (다) 속의 유하가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수지가 숨겨 놓은 힌트를 찾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처럼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희망을 가지고 방법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진 속담은 무엇일까요?



독서 후 ⑤ 고장 난 브레이크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민서가 자기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형클었다.

“고장 난 브레이크. 어떻게 될 것 같니?”

민서가 씩 웃었다.

“처음부터 수지를 괴롭힐 생각은 없었어. 내가 담배 피우는 걸 본 수지는 언니처럼 타이르더라. 재수 없게 말이야. 이제껏 누가 날 타이른 적이 없었거든. 내가 공부는 잘하지만, 건강 해치면 다 팡이라나? 비밀은 지켜 줄 테니까 담배를 끊으라더라. 지가 우리 엄마라도 되는 것처럼 오지랖을 떨더라니까. 마침 현지가 전학 간 뒤라 심심하던 참이었어.”

(나) “너희들 아무리 이래도 우리를 어떻게 못 해. 우리 아버지는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분이거든. 어떤 수단으로든 날 가해자로 만들진 않으실 거야. 무서운 분이거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야. 그리고 다희 아빠는 그 많은 돈 어디다 쓰겠니? 너희들 손 떼는 게 좋을걸. 아님 다쳐. 수지가 자살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게 있지 않았겠니? 수지 뜻을 짓밟지 마라.”

(다) “우리 고모는 화장실에서 밀걸레를 밀며, 변기를 닦으며 하는 말이 있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항상 주문처럼 말한대. 그 직장 때문에 우리 식구 밥 먹고 산다고 말야. 만일 그곳에서 고모가 잘리면 우리 모두 공부를 계속할 수 없을걸?”

언젠가 수지가 했던 말이야. 머리에 전구가 반짝 켜지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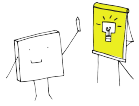
혹시? 그걸 이용해서? 소름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애들이 다희네 빌딩을 이용해 고모를 해고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면? 만일 발설하면 해고한다고 했다면요? 민서도 수지가 목숨 바쳐 지키고 싶은 게 무엇인지 찾아보라 했어요.”

1. 민서가 수지를 괴롭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가)에서 민서가 자신을 고장 난 브레이크 라고 말한 이유를 (나)에서 찾아 적어 보세요.

3. 수지가 죽음을 선택하면서까지 끝내 학교 폭력을 밝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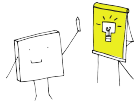
독서 후_ 고민 상담소 ①

1. 《침묵의 다이어리》속 수지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다가 끝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청소년이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고 극복할 방법을 생각해보고 적어 보세요.

Blank area for writing answers to question 1.

2. 어디에선가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편지를 써 보세요.

Blank area for writing answers to question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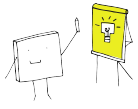
독서 후_ 고민 상담소 ②

1. 『침묵의 다이어리』의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마음이 가는 인물은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Blank space for writing the answer to question 1.

2. 내가 가장 마음 가는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세요.

Blank space for writing the answer to question 2.



독서 후 토론&논술

촉법 소년 학교 폭력, 형사 처벌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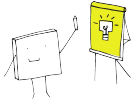
만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은 최근 잔혹한 폭행, 강간 등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왔다. 사회 변화와 낮아지는 범죄 연령 추세에 맞게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오고 있다.

청원인은 “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 동급생 친구와 같은 학교 6학년 형들에게 꾸준한 학교 폭력 및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학생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글을 통해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간 학생이 주변에 말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말하면 죽여 버린다고 때렸으며 보복을 이미 당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상대측 부모는 ‘학폭위(학교내 폭력위원회) 열어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해자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 너무 막막하다”며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난 상황. 단순 학교 폭력인줄 알았던 일이 성폭행 및 협박 상황할 수도 없는 일들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촉법소년 범죄는 점점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더 큰 범죄자를 만들 뿐”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제정을 요구기도 했다.

▶안전신문 2022.06.20

※ 위의 기사를 읽고 촉법소년 학교 폭력 범죄 형사 처벌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정답과 해설(예시답안)

2쪽	<p>1.</p> <p>1) 예시 답안) 다이어리에 수지의 죽음과 관계된 이야기가 적혀 있을 것 같다.</p> <p>2) 예시 답안) 왜 다이어리가 침묵한다고 하는지 궁금하다.</p> <p>3) 예시 답안) 수지를 죽인 사람들의 정체를 찾아냈을까?</p> <p>2.</p> <p>1) 예시답안) 수지가 학교 폭력으로 인해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p> <p>2) 예시답안) 다이어리에 죽음의 이유를 숨겨 놓았을 것 같다. 그것을 단적인 ‘나’가 찾아 주었으면 해서 다이어리를 보낸 것 같다.</p> <p>3) 예시답안) 다이어리 속 내용에 수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어떠한 사건이 정확하게 담겨 있지 않을 것 같다. 분명히 무언가 말하려고 한 것은 있는데 쉽게 알아챌 수 없는 장치가 되어 있어 알기 어려울 것 같다.</p>																
3쪽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38 994 544 1055">수지</td> <td data-bbox="544 994 1433 1055">예시답안) 순수한, 착한, 차분한, 겁많은, 창의적인, 슬픈</td> </tr> <tr> <td data-bbox="338 1055 544 1151">유하</td> <td data-bbox="544 1055 1433 1151">□ 예시답안) 슬픈, 용기 있는, 믿음직한, 순수한, 따뜻한, 분별 있는, 적인, 결단력 있는, 강단 있는</td> </tr> <tr> <td data-bbox="338 1151 544 1205">은재</td> <td data-bbox="544 1151 1433 1205">□ 예시답안) 적극적인, 해맑은, 순수한, 감성적인, 밝은, 따뜻한, 단호한</td> </tr> <tr> <td data-bbox="338 1205 544 1301">영모</td> <td data-bbox="544 1205 1433 1301">□ 예시답안) 용기 있는, 분별 있는, 믿음직한, 적극적인, 부드러운 차분한, 성숙한, 현명한</td> </tr> <tr> <td data-bbox="338 1301 544 1355">민서</td> <td data-bbox="544 1301 1433 1355">□ 예시답안) 공격적인, 냉정한, 거만한, 건방진, 날카로운, 쌀쌀맞은</td> </tr> <tr> <td data-bbox="338 1355 544 1413">유하 엄마</td> <td data-bbox="544 1355 1433 1413">□ 예시답안) 따뜻한, 안전한, 밝은, 포근한, 친근한</td> </tr> <tr> <td data-bbox="338 1413 544 1509">유하 아빠</td> <td data-bbox="544 1413 1433 1509">□ 예시답안) 믿음직한, 따뜻한, 부드러운, 감성적인, 잔잔한, 유능한, 친 포근한, 성숙한, 현명한</td> </tr> <tr> <td data-bbox="338 1509 544 1568">수지 고모</td> <td data-bbox="544 1509 1433 1568">□ 예시답안) 근면한, 슬픈, 부드러운, 차분한, 포근한, 안전한</td> </tr> </table>	수지	예시답안) 순수한, 착한, 차분한, 겁많은, 창의적인, 슬픈	유하	□ 예시답안) 슬픈, 용기 있는, 믿음직한, 순수한, 따뜻한, 분별 있는, 적인, 결단력 있는, 강단 있는	은재	□ 예시답안) 적극적인, 해맑은, 순수한, 감성적인, 밝은, 따뜻한, 단호한	영모	□ 예시답안) 용기 있는, 분별 있는, 믿음직한, 적극적인, 부드러운 차분한, 성숙한, 현명한	민서	□ 예시답안) 공격적인, 냉정한, 거만한, 건방진, 날카로운, 쌀쌀맞은	유하 엄마	□ 예시답안) 따뜻한, 안전한, 밝은, 포근한, 친근한	유하 아빠	□ 예시답안) 믿음직한, 따뜻한, 부드러운, 감성적인, 잔잔한, 유능한, 친 포근한, 성숙한, 현명한	수지 고모	□ 예시답안) 근면한, 슬픈, 부드러운, 차분한, 포근한, 안전한
수지	예시답안) 순수한, 착한, 차분한, 겁많은, 창의적인, 슬픈																
유하	□ 예시답안) 슬픈, 용기 있는, 믿음직한, 순수한, 따뜻한, 분별 있는, 적인, 결단력 있는, 강단 있는																
은재	□ 예시답안) 적극적인, 해맑은, 순수한, 감성적인, 밝은, 따뜻한, 단호한																
영모	□ 예시답안) 용기 있는, 분별 있는, 믿음직한, 적극적인, 부드러운 차분한, 성숙한, 현명한																
민서	□ 예시답안) 공격적인, 냉정한, 거만한, 건방진, 날카로운, 쌀쌀맞은																
유하 엄마	□ 예시답안) 따뜻한, 안전한, 밝은, 포근한, 친근한																
유하 아빠	□ 예시답안) 믿음직한, 따뜻한, 부드러운, 감성적인, 잔잔한, 유능한, 친 포근한, 성숙한, 현명한																
수지 고모	□ 예시답안) 근면한, 슬픈, 부드러운, 차분한, 포근한, 안전한																
4쪽	<p>1.</p> <p>예시답안) 죽은 수지의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옷으로 가릴 수 있을 만한 곳만 골라 때린 흔적이 수지의 몸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했다.</p> <p>2.</p> <p>예시답안) 수고로이 일하시는 고모의 열심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마음씨가 곱고 이해심이 깊은 성격인 것 같다.</p> <p>3.</p> <p>예시답안) 두 번이나 유하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수지는 유하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으려고 한 것 같다.</p>																

5쪽	<p>1. 예시답안) 수지는 왜 나에게 다이어리를 보냈을까? 자신이 죽을 걸 알고 보낸 걸까? 수지에게 다이어리 선물하던 날의 기억도 생생한데 수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p> <p>2. 예시답안) 수지가 보낸 택배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궁금해서 유하 주변에 모여들었고 수지의 다이어리에 자살의 이유나 죽게 만든 범인의 이름이 쓰여 있는지, 죽음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를 궁금해했다.</p>				
6쪽	<p>1.</p> <table border="1" data-bbox="339 840 1409 994"> <thead> <tr> <th data-bbox="339 840 807 875">수지의 목소리를 듣기 전</th> <th data-bbox="807 840 1409 875">수지의 목소리를 듣고 난 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9 875 807 994">수지가 다이어리에 남겨 놓은 퍼즐이 너무 어려워 암담하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다.</td> <td data-bbox="807 875 1409 994">수지가 자신을 믿고 응원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다잡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td> </tr> </tbody> </table> <p>2. 예시답안) 거짓임을 확인 시킨 생리일과 가연이, 다희, 민서 이름이 있는 문장에 찍힌 느낌표는 수지가 유하에게 남긴 힌트라는 생각이 든다. 거짓 뒤에 붙은 느낌표는 거짓을 밝히는 열쇠로 쓰였고, 세 아이에 관한 일기에도 느낌표(!)로 가해자를 밝힌 것 같다.</p> <p>3.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p>	수지의 목소리를 듣기 전	수지의 목소리를 듣고 난 후	수지가 다이어리에 남겨 놓은 퍼즐이 너무 어려워 암담하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다.	수지가 자신을 믿고 응원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다잡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수지의 목소리를 듣기 전	수지의 목소리를 듣고 난 후				
수지가 다이어리에 남겨 놓은 퍼즐이 너무 어려워 암담하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다.	수지가 자신을 믿고 응원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다잡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7쪽	<p>1. 민서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수지가 타이르자 그 모습을 오지랴 부리는 재수 없는 모습이라고 여겨 괴롭히기로 작정했다.</p> <p>2. 예시답안) 민서는 자기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아버지께서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지 않게 손을 쓸 것을 알고 있었다.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고장 난 브레이크처럼 잘못을 멈추지 못한다고 한 것 같다.</p> <p>3. 예시답안) 자신으로 하여금 다희네 빌딩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고모가 해고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떠안고 수지 본인이 사라지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길러준 고모에 대한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여겼을 것이다.</p>				

8쪽	<p>1. 예시답안) 학교 폭력이라는 것을 그저 짓궂은 장난이나 괴롭힘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실제로 매년 많은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다가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학교 폭력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더욱 그 괴롭힘의 행동이 심각해지는 것은 그러한 나쁜 일을 저질러도 처벌의 수위가 가볍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벼운 처벌로 인해 피해자에게 또다시 보복하려고 들거나 이 정도면 할만하다는 생각을 들게 할 수도 있다. 학교 폭력의 꼬리표가 자라면서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되어야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경우에라도 폭력이 정당화되고 가벼이 여겨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죄의 질도 무겁게, 처벌도 무겁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잠깐의 실수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p> <p>2. 예시답안) ○○아! 그동안 어디에다 말도 못 하고 많이 힘들었지? 괴롭히는 사람이 문제지, 절대 너의 잘못 때문이 아니니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마. 너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네가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 아파해.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자. 분명히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너는 보호받을 수 있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면 안 돼. 알겠지?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 괴롭힘당해도 괜찮은 사람은 없어.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어. 명심해야 해. 너는 귀한 사람이란걸 잊지마! 언제든 얘기하고 싶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줘!</p>
9쪽	<p>1. 예시답안)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마음이 가는 인물은 ‘유하’이다. 유하에게 마음이 가는 이유는 친구의 죽음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와중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사건의 실체에다가가면서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이 분명한데도 유하는 오히려 담대하게 사건을 파고 들고 추리해나가는데 그 모습이 믿음직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p> <p>2. 예시답안) 유하야! 고생 많았다고 너에게 손뼉을 쳐주고 싶어. 솔직히 너도 매우 무섭고 두려웠을 것 같아. 수지의 사건을 밝히지 않으려는 어른들을 맞서는 일은 다시 생각해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거든. 만약에 나였다면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할 때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 못했을 것 같은데 너는 더욱 씩씩하고 대담하게 사건을 밝혀내고 수지의 억울함을 풀어 주었잖아. 아마도 수지가 하늘에서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수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한 죄책감에서 자유롭길 바라. 네가 두고두고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마 수지도 그걸 원하지 않을까? 유하야, 강단 있는 너의 모습 나도 배울게!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을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것도 말이야.</p>
10쪽	※

예시답안) 촉법소년 학교 폭력 범죄에는 형사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촉법소년은 나이가 어려서 형사 처벌의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보호받는 것인데 악용의 사례가 너무나 빈번한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위의 기사 내용처럼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학교 폭력이라는 무서운 범죄를, 피해자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범죄를 그저 가벼운 실수 정도로 생각하게 될만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죄를 지었다면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고 그것은 어리다고 해서 면죄부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청원인의 말처럼 범죄함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더 큰 범죄자를 만들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다. 어리다는 것에 범죄를 숨겨서는 안 될 것이다.